

# 종단 혁신·교육 개선... 출가 진흥책 쏟아내

## 조계종 교육원, 4월 8일 교육아사리 포럼서

올해를 '출가진흥의 해'로 삼은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을)이 출가의 새로운 의미를 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출가 의미에 대한 고찰 외에도 출가 진흥방안이 쏟아졌다.

조계종 교육원은 4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출가, 그 새로운 의미를 찾다'를 주제로 제1차 교육아사리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범용 스님은 출가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와 향후 방향을 짚었다.

먼저 범용 스님은 출가자 감소에 대해 △한국불교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 추락 △타종교에도 해당되는 사회문화적 특징으로 분석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세계종교 시스템에 굳이 합류하지 않고도 종교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요가·명상·무술·상담 등 종교적 의례와 유사

종교체험들은 이제 일상처럼 체험이 가능해졌다. 이는 소속 종단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도 된다.

범용 스님은 "종교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며 살 수 있는 상황은 어느 종교에나 비슷한 영향을 준다"면서 "높은

### 출가의 현대적 의미 고찰부터

복지·수행·전문지식 습득 등

출가 진흥안까지 토론 '활발'

이상을 가지고 출가하는 사람들을 종단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수용해왔는지, 앞으로는 그런 수용이 가능한지 종단의 토양부터 자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가자들이 수행과 전법 활동에 장애없이 온전히 에너지를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종단과 본사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면서 "청정하고 건강한 종단이 형성되고 출가자들은 거기에 공감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이는 또한 종도들이 스스로 구현해야 하는 과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단의 역할로 △출가자들의 의미와 확고한 인식 △현대적 의미의 안거제도 △전문지식의 습득위한 지원 △수행 및 연구 환경 조성 △승려복지 제도와 △종단의 지속적 혁신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출가 진흥책들이 쏟아졌다. 해인사승가대학장 무에 스님은 △사회학적 접근 통한 한국사회 현 상황의 올바른 인식 △업무전담팀 운영 △체험형 출가 통해 승가 현실 전달 △젊은 독신세대 승가 유입방안 연구 △명퇴 지식인 흡수 △승려 복지 등을 출가 진흥 방안으로 내놨다.

무에 스님은 "혼밥·혼술과 같이나 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들이 정체성없이 방황하는 것보다 출가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의미있음을 알린다면 많은

인재를 출가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은 출가자는 나라와도 바꾸지 않을 인재 양성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광 스님은 전문 지식 습득과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원 기숙사와 연구소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총회의원 만당 스님은 신도교육과 포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아무리 좋은 출가진흥 방안이 나와도 모래위의 성임을 지적했다.

만당 스님은 "한국불교가 유구한 전통을 가졌지만, 한편으로 명쾌하고 쉽게 서술한 교리강요나 수행체계 하나 없이"면서 "알찬 교재 한권은 만들어야 신도를 교육시키고, 일반인을 불교로 안내할 수 있다. 그래야 출가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원은 올해 '출가'와 '승가상'에 대해 두 차례 교육아사리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며, '승가상' 주제 포럼은 하반기에 열린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미·터키 종교인들의 '약속' 미국과 터키의 이웃 종교인들이 조계종단 예방, 국경을 뛰어넘는 종교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5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ORPP) 초청으로 조계종을 예방한 미국과 터키의 개신교·이슬람교·천주교 종교인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과 미국·터키 종교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불거진 종교분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과 터키 대학생 간 교류의 장을 넓힐 것을 약속했다. 박아름 기자

## "미래를 이끌어 갈 동국인 되길"

### 해안장학회, 4월 7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장학금 전달

해안장학회(이사장 해안)는 4월 7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대원) 백주년 기념관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 전달식 기념촬영 모습. 앞줄 오른쪽 두번째가 해안 스님이다.

해안장학회 장학금은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원장 해안 스님이 불교종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불교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장학금을 출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올해 1학기 장학생으로 10명을 선발, 총 1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장장 해안 스님은 "오늘 이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동국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지난 2015년 장학금 지급규모를 총 292억원으로 확대하여 우수 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한 학업성취 역량 강화 부문, 봉사 역량 강화 부문, 우수 신입생 유치 부문, 제자사랑 장학 등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했다. 신성민 기자

## 제37차 한일불교대회 日 평간사서 개최

### 6월 15~18일, '불교 신앙의 다양성' 주제로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오는 6월 15~18일 일본 평간사에서 개최된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자승)는 4월 6일 서울 견지동 법인사무실에서 '불기2560(2016)년 1차 이사회'를 열고,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재적이사 31명 중 22명(위임 5)이 참석했다.

제37차 한일대회는 6월 15일부터 3박 4일간 일본에서 진행된다. 15일과 16일 각각 키누가와 온천관광 및 토치기현 닛코 성지순례 후 17일 평간사에서 '불교신앙의 다양성'을 주제로 본대회가 개최된다. 본대회는 오전 10시 30분 평

하기원법회, 오후 1시 학술대회, 오후 6시 환영만찬으로 이어진다.

학술대회에서는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한국불교신앙의 현황과 템플스테이'를, 콘도 다이겐 스님이 '일본 불교신앙의 현황과 수쿠보'를 각각 발제한다. 학술대회가 끝난 뒤에는 공동선언문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협의회 여성부가 주최하는 제11차 무차만발공양은 5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행사장소 변경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장소 결정은 여성부에 위임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 조계종 환경위원장단 5일 위촉

위원장 수임 스님 비롯 19명

2016년 사업계획도 발표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7기 환경위원장단 19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2016 사업계획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신임 위원장으로는 화계사 주지 수임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7기 환경위원 19명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장 수임 스님과 부위원장 이병인 교수는 위촉식 직후 열린 '2016 환경위 1차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개발과 보존이란 충돌 속에서 지혜로운 환경보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위가 애써주길 바란다"면서 "또한 국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위원단은 백성 스님(금선불원 주지), 종결 스님(군산 동국사 주지), 계호 스님(진관사 주지), 불암 스님(해인사 사회국장), 성범 스님(통도사 사회국장),

## 사찰림·약수 종합관리안 연구 착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7기 환경위원 19명을 위촉했다. 사진 앞줄 오른쪽 세번째가 위원장 수임 스님이다.

김익중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대 미생물학교수,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준환 국립수목원장,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학부 교수, 유정길 예코부터 공동대표, 이병인 부산대 생명자원과학대학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조경학과 교수, 이철현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연구실 연구교수, 최승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최윤호 백두대간숲연구소 연구원, 최원형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장,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등 19명이다. 사회부장 정문 스님은 당면적으로 위촉됐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7기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위원장 수임 스님은 "환경'은 우리 삶의 기본적 토대이자, 바로 나 자신'이

라며 "보존과 개발 사이 이견의 폭이 크다. 불교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보존 방법과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환경위는 이날 '2016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계속사업은 △사찰환경 보존활동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불교환경의제2 △환경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이다. 특히 환경위는 신규사업으로 △사찰림 재선충 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사찰 약수 수질특성 조사 및 종합관리방안 연구 등에 착수한다. 연구 보고서는 올 12월 발표를 목표로 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백양사 신임 주지 토진 스님 임명

자승 스님 '산중화합' 당부

백양사 신임 주지에 토진 스님이 임명됐다.

토진 스님은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토진 스님은 월성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수계(사미계)하였으며, 용천사·정방사·성광사·수국사 주지 및 제13·14·15대 중앙총회의원을 역임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오랫동안 백양사 주지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직무대행 광전 스님이 애써줘 감사하다"며 "토진 스님이 신임 주지로 임명됐으니 앞으로 방정스님을 잘 모시고, 총림 위상에 맞게 산중화합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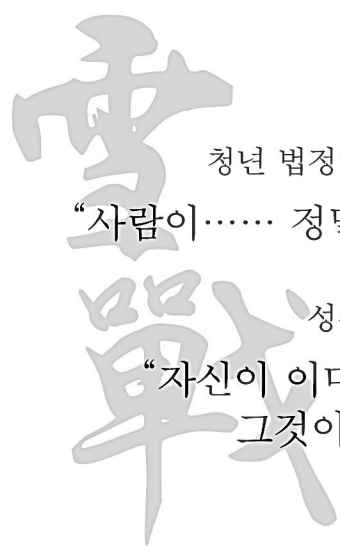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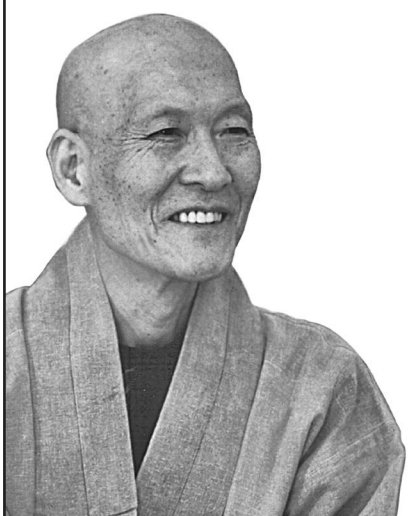


토진 스님(사진 오른쪽)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다.



# 법정이 묻고 성철이 답하다

성철과 법정, 떠난 두 거인이 남긴 마지막 이야기  
천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현문과 현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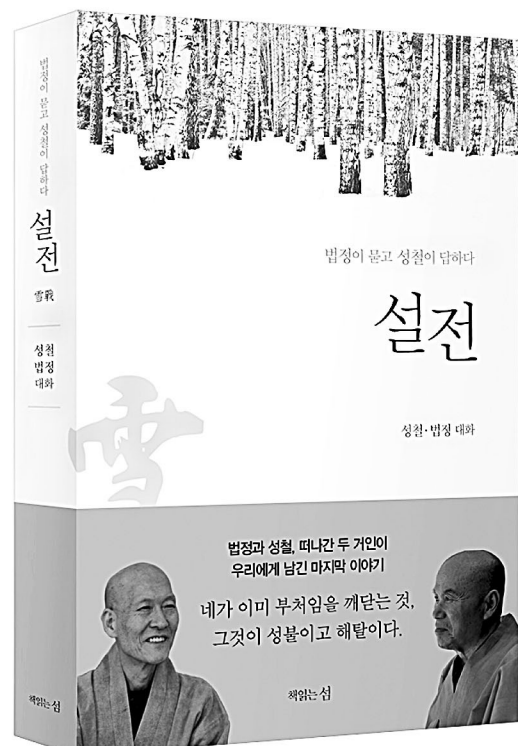


청년 법정이 성철에게 물었다.

"사람이..... 정말 성불할 수 있습니까?"

성철이 답했다.

"자신이 이미 부처임을 아는 것,  
그것이 성불입니다."



성철과 법정의 대화 50년 만에 첫 공개!

## 설전

성철, 법정 지음 | 값 13,000원 | 책읽는섬

